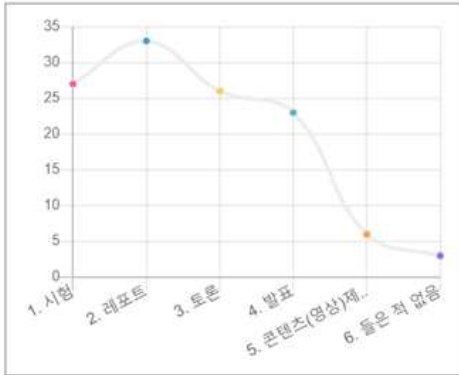


교양 학생평가기획단 최종 결과보고서

모듬명		2022 2학기 교양 학생평가기획단																																															
구성원 인적사항	대표	이름		학과(부)		학번																																											
	구성원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제안 영역		1. 평가 방법				✓																																											
		2. 수업 방법																																															
		3. 수강 신청																																															
		4. 교육 환경																																															
		5. 교양에 관한 인식 개선																																															
1. 주제는 무엇인가요?																																																	
<p>전남대학교 역량교양 교과목의 평가 방법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 수업 맞춤형 평가 방법의 다각화(시험 1회 30% 반영, 절대평가 등)를 제안</p>																																																	
2. 해결하고자 하는 교양 교육과정 문제는 무엇인가요?																																																	
<p>현재 전남대학교 역량교양 교과목의 평가방법 중 시험의 비중이 50%가 넘는 교과목은 창의는 23과목 중 11과목, 감성은 35과목 중 18과목, 공동체는 40과목 중 24과목 시험이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 만큼,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 대부분의 시험이 암기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양의 본질을 해침</p>																																																	
3.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데이터 및 통계, 선행연구 자료 등 제시)																																																	
<p>▶ 전남대학교 역량교양 교과목 현황 (시험 비중)</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영역</th> <th>0 ~ 10</th> <th>11 ~ 20</th> <th>21 ~ 30</th> <th>31 ~ 40</th> <th>41 ~ 50</th> <th>51 ~ 60</th> <th>61 ~70</th> <th>71 ~ 80</th> <th>8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창의</td> <td>5</td> <td>1</td> <td>1</td> <td>1</td> <td>4</td> <td>4</td> <td>3</td> <td>3</td> <td>1</td> </tr> <tr> <td>감성</td> <td>2</td> <td>1</td> <td>2</td> <td>6</td> <td>6</td> <td>10</td> <td>6</td> <td>1</td> <td>1</td> </tr> <tr> <td>공동체</td> <td>1</td> <td>1</td> <td>7</td> <td>3</td> <td>4</td> <td>16</td> <td>3</td> <td>5</td> <td>0</td> </tr> </tbody> </table>										영역	0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 ~ 60	61 ~70	71 ~ 80	80 이상	창의	5	1	1	1	4	4	3	3	1	감성	2	1	2	6	6	10	6	1	1	공동체	1	1	7	3	4	16	3	5	0
영역	0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 ~ 60	61 ~70	71 ~ 80	80 이상																																								
창의	5	1	1	1	4	4	3	3	1																																								
감성	2	1	2	6	6	10	6	1	1																																								
공동체	1	1	7	3	4	16	3	5	0																																								
<p>운영되는 영역 중 절반의 과목이 시험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며, 몇 년째 운영 중인 교과목의 경우 족보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객관식 위주의 시험들이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p>																																																	

▶ 전남대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5. 귀하가 생각하는 역량교양(창의)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평가 방식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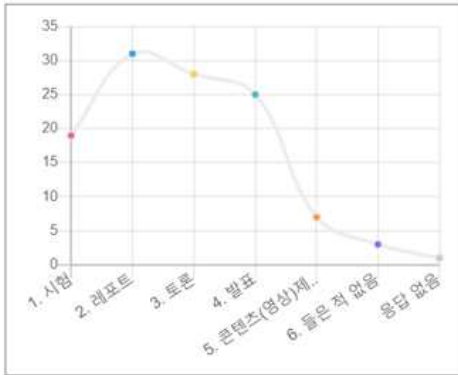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시험	27 22.9%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레포트	33 28%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토론	26 22%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발표	23 19.5%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콘텐츠(영상)제작	6 5.1%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들은 적 없음	3 2.5%

창의
1순위 **레포트(28%)**

6. 귀하가 생각하는 역량교양(감성)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평가 방식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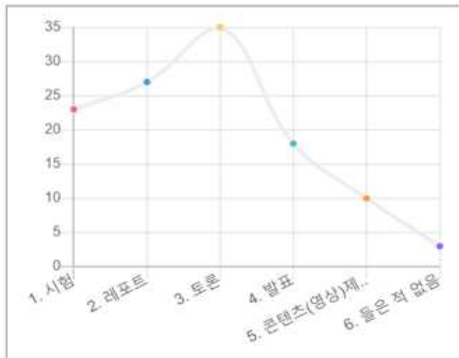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시험	19 16.7%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레포트	31 27.2%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토론	28 24.6%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발표	25 21.9%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콘텐츠(영상)제작	7 6.1%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들은 적 없음	3 2.6%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없음	1 0.9%

감성
1순위 **레포트(27%)**

7. 귀하가 생각하는 역량교양(공동체)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평가 방식은 무엇입니까?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시험	23 19.8%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레포트	27 23.3%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토론	35 30.2%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발표	18 15.5%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콘텐츠(영상)제작	10 8.6%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들은 적 없음	3 2.6%

공동체
1순위 **토론(30%)**

교양은 교양답게, 단순암기식 시험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양은 교양대로 서로 질투하거나 단순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마는 교양수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사 김수미 교수님의 수업의 시험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족보와 거의 일치하게 출제되어 족보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 유불리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상대평가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성의철 외(2015), 「절대평가 대비 강제배분 상대평가 방식이 피평가자의 외재적 동기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기대공정성, 지각된 통제감, 기대결과치를 통한 억제효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절대평가 대비 **강제배분 상대평가 방식**이 외재적 동기, 기대공정성, 지각된 통제감, 기대결과치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와 더불어 절대평가 대비 강제배분 상대평가 방식이 외재적 동기에 미치는 정(+)의 직접효과가 기대공정성, 지각된 통제감, 기대결과치 등을 매개로 한 억제효과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절대평가 대비 강제배분 상대평가의 장점으로 부각되어 온 동기 제고 효과가 실제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강제배분 상대평가 방식이 절대평가 방식에 비해 구성원들의 다른 인지·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강제배분 상대평가 방식이 가져다줄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 평가방식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김영식 외(2017), 「학생 평가 방식이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필평가 방식이 아닌 **수행평가 방식**이 교사들의 수업개선노력과 병행될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된다는 본 분석의 결과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과정중심의 수행평가**가 일부의 우려와 달리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의 수업개선노력이 수행평가와 결부될 때 학생들의 인지 능력을 제고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선 학교 현장, 특히 **교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 대학 교원의 자율평가 시범운영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김보경 외(2017),이화여자대학교 교육연구소)
절대평가는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준거(criterion, standard, cut-off)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 목표의 달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점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상대평가**는 개인이 획득한 점수를 비교 집단의 규준(norm)에 근거하여 상대적인 서열을 판단하는 평가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여 우열을 쉽게 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습 목표의 달성 정도 보다 서열이 중시되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성태제, 2009). 이처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가운데 택일하기보다 **두 방법을 절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채택하여 운영하는 **자율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교수가 교과목 특성에 맞게 성적 평가방식을 정해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대한 **교수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제도이다(교수신문, 2018). 따라서 자율평가에서 교수자는 교과목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절대평가 절충형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상대·절대평가 절충형의 의미를 기존의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기존의 상대평가에서는 성적 등급별 인원 제한이 존재하나 자율평가에서는 상대평가를 선택하더라도 성적 등급별 인원 제한 없이 평가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절대평가의 경우 교수가 정한 절대적 기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지만 **자율평가에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일정 학점비율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듯 자율평가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평가방식을 교수자가 선택**함으로써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평가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자율평가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 아직 많지 않으며, 자율평가 시행으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발생 등과 같은 우려도 존재하므로 운영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대안 등은 무엇인가요?

▶ (객관식) 시험 횟수 1회, 반영 비율 30% 미만 제안

학생들에게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강의 내용을 암기해서 풀 수 있으며 시중에 족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목은 시험 횟수를 1회로 조정하고, 그 반영비율을 축소 방안을 제안한다.

대부분 위의 특성은 주로 객관식과 단답형을 위주로 출제되는 시험에 해당한다.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위와 같은 교과목에 대한 불만사항이 가장 구체적이었다.

▶ 시험이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인 교과목의 시험 운영 방안

그러나, 교과목의 특성상 시험을 통한 평가가 가장 적절한 교과목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목의 경우 객관식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서술형 문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양의 단순한 지식의 획득보다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단순 지식 암기만 남는 수업 평가방법은 기피해야 할 것이다.

▶ 시험 이외의 평가 방식 적극 도입

시험 횟수와 반영 비율 조정 후, 시험 이외의 평가방식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 보고서(창의, 감성)과 팀프로젝트(토론·발표 포함, 공동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와 발표 같은 경우 자신의 생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양의 취지와 알맞은 평가방식일 것이다.

▶ 절대평가, 패논패 등의 평가제도 운영 교과목 확대

이화여자대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와 전남대학교 황인각 교수님의 인터뷰로부터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새로운 방식의 절대평가 제도를 구상해보았다.

우선, 강의자가 수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먼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수업에서 A+을 받기 위해서는 결석 1번 허용, 자신의 생각을 보고서나 시험에 잘 기술하기 등과 같은 형태로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한 다음, 그 기준을 달성한 학생에게는 비율의 제한 없이 모두 A+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전남대학교 창의 교양과목 황인각 교수님 인터뷰

Q. 교수님이 생각하는 **교양**이란?

A. 교양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양은 의무의 느낌으로 이걸 해야 된다 보다는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 입장에서 교양을 몇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한다 라는 개념이지만 **돈을 더 내고 배우라고 해도 배우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교양이라고 생각한다.

교양이란 예술이든 문학이든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거든 사회를 이해하는 거든 역사를 이해하는 거든 뭔가 멋진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 삶에서 아주 소중한 가치를 발굴하고 고민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느낀다.

Q. 교양수업의 평가 방식

A. Pass/Fail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대학 평가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해서 1학년 물리학과 진로설계와 자기이해에서 진행해 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이 의욕이 없어서 힘들었다. 특히 진설이는 필수교양이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다. 뭔가 잘해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몇 번은 결석해도 패스로 인정이 돼서 이걸 안 챙겨먹으면 바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결석도 꽤 많이 해서 속상하고 힘들었다.

한편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좋은 학점을 받고 싶어 하는데 패스 논패스로 점수를 주는 교양에 에너지를 쏟는 것 보다 다른 것을 열심히 해서 A 받는게 더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따라서 **Pass/Fail 평가방법은 질이 떨어진다고** 느꼈다.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사회와 대학생들이 성숙하지 않는 이상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Q. 교양수업 평가방법의 해결 방안

A. (교수님이 희망하시는 평가 방안) 우리 모두 잘하자 라고 하고 성취를 이루고자 했는데, 여기서 30%만 a를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말이 안 된다. 따라서 **교수가 이 수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무언가에 대해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는 사람 등 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의 80%이상 성취하게 되면 a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되면 시험을 치고 목표를 대비해서 봤을 때 목표의 70%밖에 달성 못 한 것과 같은 정도를 스스로가 깨달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 절대평가도 가능하다고 본다. (현실적인 평가 방안) 이는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다. 그렇지만 지필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서술형이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교양의 목적이 지식 보다는 **생각을 넓히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도 사실 서술형 시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발표도** 마찬가지로 이다.

Q. 전남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A. 교수 스스로 교양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치거나 스트레스가 쌓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교양에 애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수업을 할 수 없다. 교수가 교양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수업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피피티를 보고도 말투나 학생을 대하는 태도 등) 한마디로 교수의 상태가 좋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수를 선발할 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연구 실적이나 우수한 기관에서 뛰어난 성과와 연구 경험을 한 사람을 뽑는다. 연구력이 높은 사람이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채용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교양 수업을 맡을 교수님을 뽑을 때라도 교수 면접에서 교양 수업을 맡을 생각이 있는지 의사를 묻고 교양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실제 교양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시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자기 전공 지식만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교양 수업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Q. 교수 평가제도 시스템

A. 가끔 학생들이 어떤 수업이 힘들다, 교수님이 성의가 없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마지막 수업 평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라고 말해준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교수님들이 다 아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한다. 이 시스템에 대해 아직 불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수업 평가를 했을 때 이것이 결코 공개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명시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절대 **교수님이 알 수 없으니까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라는 문구와 **교수에게 과도한 표현을 삼가고 부드러운 말투로 작성해 주세요**와 같은 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 서울대학교 죽음의 과학적 이해 교양과목 유성호 교수님

“죽음의 과학적 이해가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 학생들에게 최대한 학점을 잘 주기 때문인 것도 있다. 사실 현재 많은 외국의 대학교들이 교양 수업을 **Pass/Fail 제도로**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렇게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타 대학 사례

① 이화여자대학교의 '학부 교수자율평가'

담당교수가 교과목 특성에 맞게 평가방식을 정해 성적을 부여하는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등급별 인원 제한이 없으며, 절대평가는 등급별 최소 비율만 보장한다.

절대평가는 학점 인플레이션 등 신뢰도 측면에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원활히 시행되고 있다.

② 건국대학교의 ABF제

절대평가를 ABF제로 운영하여 특정 교과목에는 A, A+, B, B+, F의 학점만을 부여하는 평가 방식을 운영 중이다(캡스톤디자인, 드림학기제, NCS교육과정, 토론식당의, 플립드러닝과 관련한 강의에 한정).

외에도 실습과 실기가 포함된 인류, 기업, 과학 분야의 수업이 많으며 토의 기법과 마이크로 레슨(수업이 5.5주 안에 집중적으로 진행)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③ 서울대학교의 교양과목

영화보기, 책 읽기, 토론 및 대화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신입생 세미나는 합불제로 운영되며, 공연 예술의 이해는 연극 영상을 보고 예술에 대한 대화를 감상문 쓰기와 시험으로 평가한다. 외에도 시험 없이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론 수업을 들으며 관심 있는 분야 혹은 더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 레포트 5개를 작성하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의 이해 등 교양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교과목 운영에 힘을 쓰고 있음.

5.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과(효과)는 무엇인가요?

1. 단순 암기 형태의 교양 지식 획득 지양
2.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교양 수업을 통한 사고력 증진